# 신라춤과 산신신앙 연구

이 송*

차 례

1. 들어가면서
2. 신라춤에 나타나는 산신
3. 신라의 산신신앙
4. 신라의 산신신앙과 화랑
5. 신라춤과 산신신앙
6. 나오면서

## 1. 들어가면서

역사를 단순하게 '지나간 시간'으로 박제화(剝製化)시킨다면 역사는 박물관이나 책 속에 남겨져 있는 유물과 기록, 그 자체일 것이다. 크로체(B.Croce)는 '모든 역사는 동시대의 역사(All history is contemporary history)'라고, 카(E.H.Carr) 역시 '역사는 현재와 과거와의 대화[1]'라고 한다. 이것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이다.

한국 고대춤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해보면, '한국무용사'에서 '신라춤'은 일반적인 역사편년의 서술방식으로 다룬 저서들[2]과 한국 고대춤과

* 한양대학교 강사 / leesong67@hanmail.net

1) 조흥윤(2002), 『한국종교문화론』, 동문선, p.115.

2) 장사훈(1979), 『한국전통무용개론』, 일지사.
송수남(1988), 『한국무용사』, 금광.

www.kci.go.kr

신라춤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학위논문들[3]이 있다. 이들 논문들에서는 대부분 신라춤을 삼국통일 전후로 분류하여 통일 이전에는 어떤 춤이 있고, 통일 이후에는 어떤 춤이 있다는 춤의 종목을 나열하고 있는 정도이다. 이는 앞의 저서들도 대동소이하다. 학위논문 이외에 눈여겨 볼 연구성과로 김효분의 논문[4]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은 신라시대를 상대(上代)·중대(中代)·하대(下代)로 구분해 정치사회적 배경을 토대로 신라시대 무용의 발전과정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있다.

최근 춤학문(chorology)은 문화인류학의 한 분야로 분류[5]되고 있다. 한국 고대춤을 연구하는 데에는 문화인류학의 특징적 관점인 총체론적 관점(wholistic view)[6]이 요구된다고 본다. 총체론적 관점은 어떤 사물의 부분도 총체를 떠나서는 충분하고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며, 어떠한 총체도 그것을 구성하는 부분들에 대한 친밀하고도 전문적인 지식 없이는 정확하게 인식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총체론적 관점은 주로현상으로서의 문화연구에 유효하다고 조흥윤은 보고 있다.[7]

역사적 현상으로서의 고대 춤 연구는 그 생성과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 방법이 시도되어야 한다. 김효분 역시 고대춤을 연구하는

---

김매자(1995), 『한국무용사』, 삼신각.
정병호(1999), 『한국의 전통춤』, 집문당.
성기숙(1999), 『한국전통춤연구』, 현대미학사.

3) 김선미(1985), 「신라시대무용에 대한 사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종숙(1985), 「한국고대무용의 역사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병옥(1993), 「고대 한국무용사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혜진(1999), 「신라시대무용과 통일 신라시대 무용의 변화양상」,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 김효분(2003), 「신라상대의 무용발전과정」, 『한국체육학회지』 제42권 제2호, pp. 293-302.
_____(2004), 「신라중대의 무용발전과정」, 『한국체육학회지』 제43권 제3호, pp. 581-589.

5) 신상미(1996), 「궁중학무와 민속학춤의 구조비교 연구」, 『대한무용학회지』 제25권, pp.143-164.

6) 한상복·이문웅·김광억(1985), 『문화인류학개론』, 서울대학교출판부, pp.19-20.

7) 조흥윤(2002), 전게서, pp.117-118.

www.kci.go.kr

방법에 대해 문헌학적, 문학적, 정치 사회학, 국사학, 민족사학, 국어국문학 등 관련학문 분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어 한국무용사를 더욱 풍부하게 연구해야 할 필요성과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8)]

이것은 한국 고대춤이 한국 역사의 흐름 속에서 형성된 역사와 문화현상으로, 그것이 형성된 사상적 배경과 역사 속에서 의미, 변화 내지 전개 등이 역동적으로 역사적 인과관계 속에서 해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역사적 문화현상으로서 신라춤이 당대의 문화사적 인과 관계에서 춤의 의미를 파악해 보기위해 신라문화의 사상적 배경의 하나인 산신신앙을 토대로 신라춤에 나타나는 산신신앙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신라문화의 특성인 화랑, 산신신앙 등을 고대 문헌과 선행연구 성과를 문화인류학의 총체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신라춤'의 명칭을 신라시대의 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문의 내용에서는 신라춤으로 명기한다. 또한 신라춤의 원형적 모습은 오늘날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삼국유사(三國遺事)』, 『삼국사기(三國史記)』의 산신(山神)과 관련된 춤의 설화를 바탕으로 함을 밝혀둔다.

논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대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산신신앙과 관련된 신라춤을 먼저 살펴보고 그 속에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신라 사람들의 세계관을 규정하고 문화를 형성한 신라문화의 사상적 배경의 하나인 산신신앙에 대해 연구한다. 셋째, 신라문화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화랑의 역할 속에서 산신신앙과의 관계를 탐구해 보고자 한다. 넷째, 신라문화의 특성과 신라춤과의 연관성을 통해 신라춤에 내재되어 있는 산신신앙의 의미를 연구하려고 한다.

www.kci.go.kr

8) 김효분(2002), 「도솔가와 회소곡의 무용사적 의미」, 『대한무용학회지』 제33호, pp. 50-51.

## 2. 신라춤에 나타나는 산신(山神)

고대 문헌에 전해오는 산신과 관련된 신라춤은 '상염무(霜髯舞)', '옥도령(玉刀鈴)', '사선무(四仙舞)' 등이다. 이 춤들의 기록을 살펴봄으로써 연구 방향을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상염무의 유래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왕이 포석정에 행차했더니 남산(南山)의 신이 앞에 나타나서 춤을 추었다. 좌우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왕만 홀로 이것을 보았다. 신이 앞에 나타나 춤을 추니 왕 자신도 춤을 추어 그 형상을 보이었다. 신의 이름을 상심祥審이라 했으므로 지금까지 나랏 사람들이 이춤을 전하여 어무상심(御舞祥審) 또는 어무산신(御舞山神)이라고 한다. 어떤 이는 신이 이미 나와 춤을 추자 그 모습을 살펴 본떠 공인에게 명하여 모습에 따라 새겨 후대 사람들에게 보이게 했으므로 상심(象審)이라고 한다고 했다. 또 어떤 이는 상염무(霜髯舞)라고도 하니 이는 그 형상에 따라 일컫는 것이다."[9]

이 설화는 『삼국유사(三國遺事)』 권2 처용무(處容舞) 망해사조에 나와 있는 상염무의 유래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 '왕 자신도 춤을 추어(王自作舞)' 그 형상을 보이었다는 것은 왕이 직접 산신제, 용신제 등을 주관했다는 것으로 고대사회 제정일치(祭政一致)의 왕을 엿볼 수 있게 하는 한 예이다.

이처럼 남산의 신과 관련이 있는 장소인 포석정이 후대에 술잔을 띄우며 노는 유상곡수(流觴曲水)의 터로 변모된 것은 "신사(神事)로서의 놀이가 인사로서의 유락(遊樂)으로 변해버린"[10]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또 "신라의 망국의 날(935) 경순왕이 포석정에서 유오했다는 것"은 경순왕이 국가 존망의 위기에서 "호국의 산신에게 명조(冥助)를 청하기 위한 제의

www.kci.go.kr

9) 미지나 아키히데(三品彰英)·이원호(역)(1995), 『화랑연구』, 집문당, p.133.
10) 미지나 아키히데(三品彰英)·이원호(역)(1995), 전게서, p.133.

(祭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단순하게 유락연오(遊樂宴娛)에 빠져 나라가 무너지는것 마치 몰랐다는 식의 역사 연구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됨을 지적하고 있다.[11] 또한, 경애왕도 견훤의 군대를 맞아, 남산신의 도움으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이곳으로 행차하였다[12]고 한다.

따라서 포석정은 남산의 신에게 제사지내는 제장(祭場)인 성스러운 곳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포석정이 남산신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한다면, '옥도령'은 북악(北岳) 산신에 관한 설화로 다음과 같이 전해지고 있다.

> 헌강왕이 또 금강령(金剛鈴)에 거동하였을 때 북악의 산신이 나타나 춤을 추었는데, 이를 옥도령(玉刀鈴)이라 했다. 또 동례전(同禮殿)에서 잔치를 할 때에는 지신이 나와서 춤을 추었는데 그 춤을 지백급간(地伯級干)이라 하였다. 어법집에 말하기를 그때 산신이 춤을 추고 노래 부르기를 '지리다도파(智理多都波)'라 했는데 '도파(都波)'라고 한 것은 대개 지혜로 다스리는 사람이 미리 사태를 알고 많이 도망하여 도읍이 장차 파괴된다는 뜻이다. 즉, 지신과 산신은 나라가 장차 멸망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춤을 추어 이를 경계한 것이나 나라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상서(祥瑞)가 나타났다 하여 술과 여색을 더욱 좋아했으니 나라가 마침내 망하고 말았다.[13]

또, 『삼국사기』 권2 신라본기11 헌강왕조에 보면, 헌강왕 5년 3월에 "왕은 극동지방의 주군(州郡)에 행차하였다. 이때 알 수 없는 4사람이 왕 앞에 나타나서 노래하고 춤을 추는데 그 모양이 괴이하고 의관도 다르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산해정령(山海精靈)이라 하였다"[14]고 한다.

신라의 산신신앙과 관련해 사선무(四仙舞)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11) 미지나 아키히데(三品彰英)·이원호(역)(1995), 전게서, p.133.
12) 홍비연(2004), 「삼국유사 기이편의 신화 및 향가연구」,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27.
13) 김선미(1985), 전게서, pp.18-19. 재인용.
14) 김선미(1985), 전게서, p.19.

www.kci.go.kr

신라 때 영랑(永郎)·안상(安祥)·술랑(述郎)·남석행(南石行) 이 네 사람이 수려한 산수를 찾아 즐겨 놀았다. 세상 사람들이 이 네 사람을 사선(四仙)이라 하였는데, 이들은 주로 금강산에 있는 무선대(舞仙臺)에서 즐겼으며, 전하는 말에는 사인취무(四人醉舞)라 하기도 했다.15)

신라 때에 영랑(永郎)·안상(安祥)·술랑(述郎)·남석행(南石行) 등 4명의 화랑이 수려한 산수를 찾아다니며 풍류를 즐겨 이 4인을 사선이라 일렀다. 세속에 전하기를 사선취무라고도 불렀으며, 조선조 순조(純祖) 때 사선이 노닐 만큼 태평성대란 뜻에서 창제된 향악정재이다.16)

이와 같이 사선무의 유래는 『진연의궤(進宴儀軌)』와 『정재무도홀기(呈才舞圖笏記)』에 나와 있다. 신라의 화랑 사선(四仙)이 금강산 무선대에서 춤췄다는 기록은 곧 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앞의 기록들을 통해 신라춤과 산신신앙에 대한 몇 가지 연구방향을 정리해 볼 수 있다. 그것은 춤이 연행된 장소, 연행자, 연행 목적 주체, 연행 목적 등이다. 즉, 연행장소는 포석정, 금강령 및 궁궐 내 동례전 등은 모두 제장(祭場)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7) 또 연행자는 '신이 앞에 나타나 춤을 추니 왕 자신도 춤을 추어 그 형상을 보이'거나 '북악의 산신이 나타나 춤'을 추고, '지신이 나와서 춤'을 추었다는 기록 등으로 보아 왕이 춤을 추거나 화랑이 춤을 춘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신라의 산신제를 담당하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것으로 이들의 역할 속에서 신라 문화의 특징을 찾아 낼 수 있는 요소이다. 또 춤의 형태에 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신이 현현(顯顯)해 춤을 추었다는 것으로 미뤄 볼 때 접신(接神)의 춤으로 제의 형태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따라서 '상염무', '옥도령', '지백급간', '지리다도파(智理多都波)', '산해정령', '사선무' 등은 신라의 산신과 산신제(山神祭)와 밀접

www.kci.go.kr

15) 송수남(1988), 전게서, pp.50-15.
16) 이홍구·손경순 역(2000), 『조선궁중무용』, 열화당, p.129.
17) 홍비연(2004), 전게서, p.127.

한 관련이 있는 춤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행 목적은 산신신앙을 통한 나라의 위급함을 암시해주거나 도움을 받으려는 제재수호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방향을 토대로 신라의 산신신앙, 산신신앙과 화랑, 그리고 신라춤과 산신신앙을 탐구한다.

## 3. 신라의 산신신앙

고대 신라인들은 나무, 새, 달, 용, 천마 등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신격화 해 신으로 모셨다. 산신신앙, 신목(神木)신앙, 천조(天鳥)신앙, 용 신앙, 천마 신앙 등 이중 산신신앙은 신라인들에게 각별하다고 한다.[18] 그것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보면, 신라의 시조(始祖) 및 6부족(部族) 촌장들은 모두 하늘에서 산으로 내려오거나 탄생한 것임을 『삼국유사』 기이편 시조혁거세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알 수 있다.

> 경상도 진한(辰韓) 땅에는 예부터 여섯 마을(村)이 있었다. 첫째는 알천(閼川) 양산촌(楊山村)으로 남쪽은 지금의 담암사(曇巖寺)이고 마을 어른을 알평(謁平)이라 했는데 처음에 표암봉(瓢巖峰)으로 내려와서는 급량부(及梁部) 이씨(李氏)의 조상(祖上)이 되었다. 노례왕 9년(32)에 부를 두면서 이곳을 급량부라 하였는데 고려 태조 천복년 경자(940)에 이름을 고쳐 중흥부라 하였다. …(중략)… 여섯째는 명활산(明活山) 고야촌(高耶村)이니 마을 어른은 호진(虎珍)이었다. 처음에 금강산(金剛山)으로 내려와 습비부(習比部) 설씨(薛氏)의 조상이 지금은 이곳을 임천부(臨川部)라 한다. 이렇게 6부의 조상들은 모두 하늘에서 내려왔다.[19]

18) 이도흠(2000), 『신라인의 마음으로 삼국유사를 읽는다』, 푸른역사, p.35.
19) 김연희(1993), 「신라초기 제의 성립과 변천과정」,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3.

www.kci.go.kr

이것은 사로국(斯盧國)으로 통합되기 이전 6촌의 모습과 혁거세가 시조로 등장하여 신라가 건국되기까지의 전설을 담고 있는 기록이다. 이처럼 천신시조가 산상에 하강한다는 관념, 신앙은 퉁구스 문화권의 문화복합 요소의 하나이다. 천신이 하강하는 지점이 평지가 아니고 산상(山上)인 것은 아시아 대륙의 북방계 민족의 공통된 특징의 하나라고 한다.[20] 고대인들은 산이 천상과 지상간의 통로, 나아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으로 보았다. 이러한 천상과 지상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산을 "우주산((宇宙山), Cosmic mountain)"[21]이라 한다.

신라는 건국 전부터 시작하여 멸망하는 순간까지 전국 각지의 산(山)에서 국가규모의 제사가 치러진다. 또 산신의 아들이 왕으로 추대되고 왕이 죽으면 산신이 되는 등 신라에서 산신신앙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대상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삼국통일 후 삼산오악(三山五岳)은 신앙으로 체계화 된다.[22]

먼저, 오악의 성립과정을 살펴보면, 오악은 원래 신라의 중심부인 경주지역 주변에 성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가운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 넓은 영토를 소유하게 되면서 통일 신라의 사방과 중앙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산들을 오악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신라는 삼산, 오악 이하 명산대천을 나누어 서라벌 인근의 나력산·골화산·혈례산을 삼산으로 삼아 대사(大祀)를 지내고, 토함산·계룡산·지리산·태백산·팔공산을 오악(五岳)으로 중사(中祀)를 지낸다. 그리고 금강산·설악산 등 스물 네 곳의 산에 소사(小祀)를 올렸다. 신라에서의 산천(山川)은 자연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라 볼 수 있다.

앞장의 신라 사선무를 연행한 장소가 금강산이라는 것은 이처럼 신라

20) 김연희(1993), 전게서, p.14.
21) M.Eliade·이은봉(역)(1979), 『종교형태론』, 형설출판사, pp.137-139.
22) 강영경(1992), 「신라 전통신앙의 정치·사회적 기능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45-46.

www.kci.go.kr

의 소사가 행해진 의미 있는 장소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라의 사선 화랑이 춤춘 사선무는 신라 화랑인 영랑(永郎)·안상(安祥)·술랑(述郎)·남랑(南郎)이 나라의 평안과 국토수호를 기원하기 위해 금강산의 산신에게 제사(祭祀)를 지내는 의식(儀式)의 한 과정에서 비롯된 춤이라 할 수 있다.[23]

이처럼 신라인들이 산신을 모신 까닭은 산신은 곧 천신이었기 때문이다. 신라인들은 하늘과 땅의 질서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신들은 대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천제나 일월제를 지내 재앙을 몰아내고 복을 불러 오고자 한 것이다.

또한 삼산오악은 국가적 제의의 대상인 동시에 신라의 왕권확대와 수호, 영토 확장의 상징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오악은 통일신라의 변방에 위치함을 통해 신라 국토의 경계와 국토수호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24] 이는 탈해(脫解)가 토함산(吐含山)을 거쳐 경주지방으로 진출한 점을 미뤄 볼 때 토함산은 석씨세력의 상징적인 산이다. 또한 경주의 원주민과 동해안 석씨 부족과의 정치적 연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태백산을 중심으로 한 영주 지방의 부족도, 중악인 부악의 경우도 신라 세력권에 수용되었다. 지리산은 신라에 투항하여 그 왕족이 신라의 진골로 편입된 본가야에 가깝다.

이렇게 볼 때 오악의 제사는 자연의 대상으로서의 의미는 희박하다. 이기백은 '신라오악의 성립과 그 의의'에서 신라는 오악을 중심으로 하여 세력을 형성하던 부족 세력을 포괄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한다.[25] 박호원 역시 왕의 산악제에는 자신의 영역을 확인 내지 과시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고, "신라 초기의 태백산제를 통해 산신제에 나타나는 기본적

www.kci.go.kr

23) 이송(2008), 「사선무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19집 2호, p.127.
24) 홍비연(2004), 전게서, p.121.
25) 이기백(1981), 『신라정치사회사연구』, 일조각, p.195.

인 목적은 앞에 상술한 것들과 마찬가지이다. 풍년·기복·수호 등의 기원 외에도 산신제에는 영역의 확인 또는 과시라는 의미가 찾아진다."[26] 는 것이다.

신라의 산신신앙은 신라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대상으로 건국 전부터 멸망하는 순간까지 이어져 온다.

삼국 통일 이전의 산신신앙은 대부분 풍년의 초래나 제재초복의 목적으로 행해진다. 산신에게 풍년이나 제재초복을 기원하였다는 것은 산신이 주민들의 수호신으로도 인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산신제의 목적은 현행 민속상의 산신제에서도 대부분 마을 수호·풍년의 초래·재앙의 방지 등으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7]

신라의 삼국통일 후 산신신앙은 신문왕(681-691)에 의해 영토 확장과 함께 중국의 영향으로 사전을 개편함에 따라 삼산오악(三山五岳) 및 명산대천의 신앙체계를 확고하게 만든다. 이처럼 신라의 사전은 영토의 확장과 함께 정비되었으며, 국가제사를 통해 국토 전역을 성역화하려는 의지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삼산오악의 사전(祀典)과 산천신앙은 수백 년을 걸친 신라의 통일 사업에 따라 점차적으로 변화 발전되어 온 것이다.

## 4. 산신신앙과 화랑(花郎)

앞에서 신라의 산신신앙은 왕권강화와 국토수호의 의미를 가진 정치적 의미까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것은 신라 문화의 한 중심축인 '화랑'의 역할에서도 엿보인다. 또한 금강산 무선대에서 취무한

www.kci.go.kr

26) 박호원(1997), 「한국공동체 신앙의 역사적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p.62.
27) 박호원(1997), 전게서, p.62.

신라 사선무의 화랑은 어떤 연유에서 이 춤을 추었는지 화랑의 역할 속에서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화랑이 제도화 된 것은 진흥왕 때이다. 화랑은 진흥왕 37년(567)부터 진성왕(896)에 이르기까지 약 300년간 존속 되었다.[28] 그간 각 문헌에 기록된 화랑과 낭도의 이름은 40여 명에 이른다. 이들 화랑과 낭도들은 삼국을 통일하는 원동력이자 주체세력으로 신라문화를 이끌어 간 인물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화랑도에 대한 사료(史料)는 많지 않고,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가장 많은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삼국사기』는 김대문의 『화랑세기(花郎世紀)』와 최치원의 '난랑비서문(鸞郎碑序文)'을 인용 언급하여 화랑도의 기원 및 성격에 관한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삼국유사』에는 화랑의 그 체적인 삶의 모습을 다수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이것은 화랑도의 시대적 변화양상을 연구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이밖에 『파한집(破閑集)』, 『해동고승전(海東高僧傳)』, 『동유기(東遊記)』, 『동국통감(東國通鑑)』 등에 화랑의 전기와 사적이 수록되어 있다.

우선, 고대 문헌에 전해지는 '화랑'에 관한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 4)-1 37년 봄 처음으로 원화를 받들었다. 먼저 군신이 인재를 알지 못하여 근심하다가 많은 사람을 무리지어 놀게 하여 그들의 행실을 봄으로 인재를 뽑아 등용하고자 하였다. 이에 아름다운 두 여자를 뽑았는데 한사람은 남모(南毛)이고, 한사람은 준정(俊貞)이었다. 무리를 삼백여명이 모였는데 두 여자가 서로 아름다움으로 다투어 서로 질투하였다. 준정은 남모를 자기집으로 유인하여 독한 술을 권하여 취하게 한 다음 그를 끌어다가 강물에 던져 죽였다. 준정은 사건이 드러나 죽임을 당하고 무리들은 조화를 잃고 흩어졌다. 그 후 아름답고 잘 생긴 남자를 뽑아 곱게 단장하여 화랑이라 하고 이를 받들었는데 무리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혹은 서로 도의를 연마하고, 혹은 가악을 즐기고, 산수를 유람하였는데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 이로 인하여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을 알게 되고 그 중에 좋은 사람을 조정에 추천하였

28) 김대문(지음)·조기영(편역)(1997), 『화랑세기』, 장락, p.23.

다.[29]

4)-2 "신라 제24대 진흥왕은 … 또 천성이 멋스러워 신선(神仙)을 크게 숭상하며, 민가의 아름다운 처녀를 가려서 원화(原花)로 삼았다 … 그 후 여러 해 만에 왕은 또 나라를 흥하게 하려면 반드시 풍월도를 먼저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하여, 양가의 덕행 있는 사내를 뽑아 고쳐서 화랑이라 하였다."[30]

4)-3 "화랑은 선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신궁(神宮)을 받들어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 옛날 연나라 부인들은 선도를 좋아하여 미인들을 많이 양성하였으며, 그 이름을 〈국화〉라고 하였다. 이러한 풍습이 동쪽으로 전해져 우리나라에도 〈원화〉가 생겼으며, 그 후 지소태후(진흥왕의 어머니)가 이를 폐지하고 화랑을 두어 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받들게 하였다." … "그 뒤 선화(仙花)를 화랑으로 삼아 그 무리를 풍월이라 부르고, 그 우두머리를 풍월주(風月主)라 하였다."[31]

4)-4 당(唐)나라 영호징(令狐澄)의 『신라국기(新羅國記)』에는 "귀인(貴人)의 자제로 아름다운 자를 뽑아 분을 바르고 곱게 단장하여 화랑이라 이름하였는데, 나라 사람들이 모두 존경하여 섬겼다"[32]

위 글 4)-1~4를 정리해보면, 화랑의 조건은 "좋은 가정의 출신이며", "어려서 덕행을 보인 사내", "꽃다운 사내, 미모의 남자, 귀인의 자제, 풍자(風姿)가 아름다운 사내" 등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고대 문헌의 기록에 의하면, '원화'나 '화랑'을 시작한 목적은 덕행 있는 양가의 인재를 뽑아 교육시키고, 나라를 흥하게 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화랑의 기원에 대해 미지나 아키히데는 초기에는 삼한에서

29) 三十七年春 始奉源花 初君臣病無以知人『삼국사기』 신라본기(新羅本紀), 진흥왕(眞興王) 37년.
30) 第二十四 振興王 … 又天性風味, 多尙神仙, 擇人家娘子美艶, 俸爲原花 … 累年, 王又念欲興邦國, 須先風月道, 更下令選良家男子有德行者, 改爲花郎『삼국유사(三國遺事)』, 권 3, 彌勒仙花未尸郎 眞慈師條.
31) 김대문(지음) · 조기영(편역)(1997), 전게서, p.23.
32) 『삼국사기(三國史記)』1권 4, 진흥왕(眞興王) 37년조.

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자생적으로 발전하였으나 신라 진흥왕대에 와서 국가적 규모의 청소년 훈련단체로 재정비되었고 국가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33] 하지만 이종욱은 미지나 아키히데의 견해를 반대한다. 그는 『화랑세기』의 서문에 나오는 '화랑이란 선도이다'라는 데 주목하고 있다. 그것은 "신라의 선도가 지소 태후가 원화를 폐하고 화랑을 설치한 때를 기점으로, 그전에는 여자인 원화가 대표적인 존재였고, 그 후에는 남자인 화랑이 대표가 되는 집단"이었음을 강조하고 화랑의 기원을 원화로 보고 있다.[34]

여기서 연구자는 이종욱의 견해에 주목해본다. 4)-1의 글에 나오는 '원화'와 '아름답고 잘 생긴 남자를 뽑아 곱게 단장'한 화랑에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해 미지나 아키히데 역시 "여기에서 여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도 화랑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어떻든 짚고 넘어가야 하나 쉽게 해명되지 않는다."[35]고 한다. 신라의 화랑이 여성 '원화'로 시작되어 이후 '아름답고 잘 생긴 남자를 뽑아 곱게 단장'을 시켰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이것은 화랑의 역할에서부터 실마리를 풀어 나가보도록 한다. 인용문 4)-3의 '옛날부터 신궁(神宮)을 받들어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으로 보아 화랑은 제사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종욱도 화랑의 활동을 크게 무사(武士), 악사(樂士), 제사(祭祀)로 나누고 있다. 특히 그는 "옛날에 선도들은 신을 받드는 일을 위주로 하여"라는 기록으로 보아 화랑의 역할 중 제일은 제사를 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36]는 것이다.

『화랑세기』에 보면, 화랑의 성격을 일러주는 기록이 나온다. 신궁(神宮)을 모시고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신궁이 신라에 처음 세워진 것은 『삼국사기』 권3, 소지왕(炤知王) 9년조에 따르면

33) 미지나 아키히데(三品彰英)·이원호(역)(1995), 전게서, p.54.
34) 이종욱(2000), 『신라이야기』, 김영사, p.238.
35) 미지나 아키히데(三品彰英)·이원호(역)(1995), 전게서, p.57.
36) 이종욱(2000), 전게서, p.284.

www.kci.go.kr

이해 봄 2월에 신궁을 시조(始祖) 탄생지인 나을(奈乙)에 두고 있다.[37] 시조에게 제사를 올리던 전통은 신라 제2대 남해왕(南解王) 때 시작되었다. 신궁을 세우기 이전에는 시조묘(始祖廟)에서 제사가 행하여졌다. 시조묘를 처음으로 세운 남해차차웅(南解次次雄)은 왕호(王號)에서도 드러나듯이 '차차웅(次次雄)'이란 왕의 다른 칭호로 무(巫)의 뜻이다.[38] 그런데 『삼국사기』 잡지(雜誌), 제사조(祭祀條)에 보면, 남해차차웅이 시조묘를 세워놓고 "여동생 아로(阿老)에게 제사를 넘겨"(…以親妹阿老主祭)준다. 이것으로 미뤄 볼 때 김택규는 신라의 시조는 무군적(巫君的) 성격의 신인(神人)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39] 따라서 조흥윤은 『화랑세기』에 명확히 표현되어 있듯이 "신궁의 제사는 제천적 성격의 것"으로 제천의례는 "한국고대사회의 전형적이고도 전통적인 무의 의례"라고 한다.[40]

또한 여기서 남해왕의 여동생 '아로'에게 제사를 맡겼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아로'에 대해서는 미지나 아키히데는 "왕비(王妃)와 왕매(王妹)의 이름에 흔히 보이는 알(閼)은 원래 곡물을 뜻하며, 농경사회에 있어서의 곡령적인 존재"[41]라고 한다. 또한 노(老)라는 것은 무적(巫的) 능력을 가진 자로 '곡령신' 또는 '영매자'로서의 존재를 말한다. 따라서 아로는 신모(神母)적 성격의 제관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알영(閼英)·아처(阿妻)·아노(阿老) 등에서 볼 수 있듯이 ar계통의 이름을 가진 여성들은 사제적인 특별한 직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이름 안에 신라의 근원이 된 여성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42]고 한다. 이로써 신라초기 왕실여성은 왕실제사에 여사제로서의 직능을 가지고 있었고, 신라인들에게 왕과 함께 신성한 존재로 여겨 '성모(聖母) 또는 신모(神母)

37) 김연희(1993), 전게서, p.27.
38) 김연희(1993), 전게서, p.10.
39) 김택규(1993), 『한일문화비교론』, 문덕사, p.96.
40) 조흥윤(2002), 전게서, p.125.
41) 김연희(1993), 전게서, p.10. (재인용)
42) 이도흠(2000), 전게서, p.43.

www.kci.go.kr

적 존재로 관념화'[43]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신라초기의 제정일치의 통치권에서 제사가 여성 '아로'에게로 이어졌고, 이 계통이 곧 여성 화랑인 '원화'로 이어진 것으로 본다. 그것이 다시 '아름답고 잘 생긴 남자를 뽑아 곱게 단장'하는 화랑으로 이어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견해는 조흥윤과 유동식이 화랑을 무(巫)로 보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

> 『화랑세기』는 이른바 선도(仙徒)라는 화랑이 신궁을 모시고 하늘에 제사하며 신을 받드는 일에 주력하는 존재라 하였다. 화랑은 천제를 위시한 제사를 담당하는 사제인 무당의 조직에 속하여 사제 후보지의 성격을 갖는 이들이었는데, 진흥왕은 이들을 보다 제도화하여 인재 양성과 등용에 활용코자 했던 것이다.[44]

이는 고대로부터 제정일치의 차차웅에서 제정이 분리되어 제사를 담당하는 화랑에 이르는 무(巫)의 역할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여성 주제(主祭)의 제사에서 '어여쁜 남성'으로의 변화를 가져오는 시기라 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신라의 화랑은 신라의 제(祭)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4)-1의 글에 나오는 화랑의 '먼 곳에 가지 않은 곳이 없다(游娛山水)'를 살펴본다. 조흥윤은 「화랑의 종교문화」에서 화랑이 명산대천을 찾아다니며 놀았다는 것을 영랑을 비롯한 신라 사선(四仙)의 작풍로 보는 견해에 대해 무리라고 보고 있다. 이것은 화랑도가 선교(仙敎)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니 화랑의 명산대천 유오가 신선들의 작풍과 무관하지 않으며, 명산대천에서의 유오라는 하나의 면만으로 선교와 연결시키는 것은 견강부회(牽强附會)라고 지적하고 있다.[45]

www.kci.go.kr

43) 김연희(1993), 전게서, p. 20. (재인용)
44) 조흥윤(2002), 전게서, p.134.
45) 조흥윤(2002), 전게서, p.125.

미지나 아키히데는 화랑유오에 대해 '유오(遊娛)'라는 말은 "원래 고대인의 '놀이'라는 말은 단지 오락적 행위만을 지칭한 것이 아닌, 넓게는 주술적·종교적 행위를 의미"한다면, 화랑이 산수에 유오하는 행사가 "종교적 의의를 포함하였음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46] 그 결과 그는 화랑의 유오지를 한국의 고대신앙에 따르면 "신령이 출현하는 장소"로 보고 있고, 특히 "신라의 가곡 중에 산신에 관한 것"이 많음에 유의해 주술적·종교적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또 화랑유오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전사로서의 단련이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다.[47]

하지만 앞의 주술적·종교적 의의는 신라 초기의 화랑의 역할을 뜻한다면 미지나 아키히데의 '전사(戰士)로서의 단련 목적'은 삼국을 통일하기 직전과 후의 모습으로 생각된다. 무엇보다 화랑의 유오는 명산대천에 제사를 지내기 위한 것임을 화랑의 유오지와 신라왕의 순행제사지가 동일하다는 것으로 미뤄 볼 때 명산대천의 놀러 다님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기록을 보면, 『삼국유사』권제5 융천사의 혜성가(彗星歌)에는 화랑의 '유오'가 나라를 지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제5 거열랑, 제6 실처랑(혹은 돌처랑), 제7 보동랑 등 세 화랑의 무리가 금강산에 놀러가려 했을 때 혜성(彗星)이 심대성(心大星)을 침범하였다. 낭도들이 의아하여 여행을 그만두려고 하였다. 이 때 융천사가 향가를 지어 부르자 성괴(星怪)가 곧 사라지고 왜병이 물러가서 도리어 위복이 되었다. 대왕이 기뻐하여 낭도들을 금강산에 놀러 보냈다.[48]

이것은 화랑의 유오산수가 명산대천에 제사를 위한 유오에서 이후 국토수호까지의 의미로 증가되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www.kci.go.kr

46) 미지나 아키히데(三品彰英)·이원호(역)(1995), 전게서, p.128.
47) 미지나 아키히데(三品彰英)·이원호(역)(1995), 전게서, p.138.
48) 미지나 아키히데(三品彰英)·이원호(역)(1995), 전게서, p.80.

안타깝게도 화랑이 이 산신제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기록이나 연구는 찾을 수 없다. 그것은 신라이후 불교와 유교의 습합과정을 거치면서 그 본연의 의미가 전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기동은 "화랑과 관련된 산신 숭배는 그 자체가 종교적·주술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마을 단위나 국가의 수호신이 대개 산(山)을 본거지로 삼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것은 "화랑이 오산(五山)(토함산·계룡산·지리산·태백산·팔공산)을 중심으로 심신과 무술을 연마한 것으로 보아 신라의 화랑과 산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배경에는 화랑제도가 신라의 왕실과 관계가 있고, 화랑의 역할 중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면 쉽게 주도적 역할을 담당 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49]는 것이다.

## 5. 신라춤과 산신신앙

신라의 산신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춤으로 '상염무', '옥도령', '지백급간', '지리다도파(智理多都波)' '산해정령' '사선무' 등이 고대 문헌의 기록에 전해지고 있다.

앞의 2장에서 이 춤들의 유래를 통해 춤을 춘 주체가 제사를 담당하던 왕과 화랑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신라 화랑의 '유오산수(遊娛山水)'와 명산대천에 제사를 주관해 '국토의 지기(地氣)를 북돋으려는 제의적 행사를 행하는 것'과 '왕의 순행(巡行)'과도 연관이 있었다. 이것은 왕이 중앙을 떠나 지방의 각처를 돌아다니면서 정치활동을 하는 '순수(巡狩)'였다. 순수라는 것은 본래 천자가 수렵으로 군사를 훈련시키기도 하고, 제후국들의 정치와 민정을 시찰하는 활동을 일컫는다. 신라시대에는

www.kci.go.kr

49) 이기동(1984), 『신라골품제 사회와 화랑도』, 일조각, pp.313-326.

순수이외에도 순행(巡幸), 순행(巡行), 순무(巡撫), 순(巡), 행(幸) 등 다양하게 표현 되었다고 한다.[50]

이러한 사실은 신라 당대에 왕의 순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왕의 순수에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 이 순수를 행하면서 정치적으로 풍속을 관찰하며 민심을 수습하는 것과 한편으로는 하늘과 산천에 대한 제(祭)를 올리는 일을 했다. 왕이 순수에서 행하는 제의를 '순수제(巡狩祭)'라고 한다. 순수제는 국가와 백성들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이다.[51]

순수제는 산신제의 목적과도 연결되어 삼국 통일을 기점으로 이전에는 대부분 풍년이나 제재초복을 목적으로 행하던 것이, 통일 후에는 영토 확장과 왕권의 확대 및 수호 등을 위해 삼산오악 및 명산대천의 신앙체계로 확대 개편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신라인들이 산신을 모신 까닭은 산신은 곧 천신으로, 하늘과 땅의 질서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신들은 대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제나 일월제를 지내 재앙을 몰아내고 복을 불러 오기 위해 산신제를 지내고는 산신신앙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신라의 산신신앙의 특징은 북아시아 여러 종족들의 샤머니즘적 우주관과 맞닿아 있다고 한다. 이필영은 북아시아 종족들은 우주를 천상계(天上界)·지상계(地上界)·지하계(地下界)의 세 우주로 이루어졌으며, 각 우주계는 우주축에 의해 하나로 연결되는데 이 중심축은 우주산과 우주목(宇宙木)으로 설정된다고 한다. 이러한 우주산은 세계의 중심에 위치하였다고 여겨지며 이 공간을 매개로 천신적 존재가 왕래하거나 희생제의를 통해 인간의 의지를 천상에 전달하는 교류가 가능하다고 여기는 것

www.kci.go.kr

50) 홍비연(2004), 전게서, p.126.
51) 홍비연(2004), 전게서, p.127.

이다.52)

이 같은 우주산을 통해 인간이 천상으로 올라가고 천신 등의 초자연적 존재가 지상으로 하강한다는 관념을 가진 천강설화는 신라 건국시조신화에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치적 지배자이자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온 성읍국가의 지배자들이 형성시킨 이념 형태인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신라의 고대기록에 전해지는 산신신앙과 춤은 북아시아의 샤머니즘적 신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신라춤에 내재된 산신신앙을 살펴보면, 산신과 관련된 춤들에는 산신에 대한 기원들이 담겨져 있다. 이것은 산에 대한 고대 신라인들의 믿음에 기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산은 하늘과 땅이 만나 교류하는 신성한 공간으로 믿고 있음이 드러난다. 그래서 '북악 산신과 지신은 나라가 장차 멸망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춤을 추어 이를 경계'의 신호를 보내온다. 또 경애왕이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남산신의 도움을 받으려 한 기록과 화랑의 유오로 나라를 지키는 것과 금강산 산신에게 제사지내는 신라 사선무 등에는 은 마을 수호·풍년의 초래·재앙의 방지, 영토 확장, 왕권 및 국토 수호 등의 목적으로 한 신라의 산신신앙 체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 6. 나오면서

신라 문화의 사상적 배경의 하나인 산신신앙은 신라 사람들의 세계관을 규정하고 문화를 형성해 온 토대이다. 신라인들에게 산신신앙은 각별한 것으로 당대의 문화 예술적 행위를 이 토대를 바탕으로 파악할 때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신라춤

www.kci.go.kr

52) 김연희(1993), 전게서, pp.14-15.(재인용)

의 원형적 모습은 전혀 전해지지 않아 『삼국유사(三國遺事)』, 『삼국사기(三國史記)』의 기록으로 전해지는 신라의 산신신앙과 관련된 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해보면 첫째, 신라의 산신신앙은 왕과 화랑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들은 대부분 산신제를 담당하는 제주였다. 헌강왕이 동주에 순행할 때 산해신이 나타나 춤을 추는 등 왕의 앞에 신들이 현현, 현시로 춤을 추는 것은 모두 왕의 특별한 행차시에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신이 출현했을 때나 왕이 신과 접신을 해 춤을 추는 것은 왕의 행차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화랑 역시 그들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제사를 담당하는 것이다. 특히 화랑은 고대로부터 제정일치의 차차웅에서 제정이 분리되어 제사를 담당하는 무(巫)의 역할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차차웅의 여동생 '아로'의 여성 주제(主祭)의 제사에서 '어여쁜 남성'인 화랑으로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둘째, 신라 사선무를 통해 화랑의 '유오산수' 역시 신라의 산신신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것은 신라 화랑이 단순하게 명산대천을 찾아 즐기고 노닒이 아니라 삼산오악의 제사(祭祀)와 관계가 있다. 금강산 무선대에서 신라 사선(四仙) 화랑이 춤췄다는 '사선무'는 금강산이 신라의 삼산오악 중 소사를 지내는 곳으로 보아 그 의미를 신라의 산신신앙과 연결해 볼 수 있었다. 사선무는 화랑의 유오정신을 바탕으로 금강산의 무선대에서 산신제를 올리는 제의 춤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이와 같은 신라의 산신신앙은 북아시아 종족들의 샤머니즘과 연결되어 있다. 그것은 산을 통해 인간이 천상으로 올라가고 천신 등의 초자연적 존재가 지상으로 하강한다는 관념을 가진 것으로 신라 건국시조 신화에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치적 지배자이자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온 성읍국가의 지배자들이 형성시킨 이념 형태인 것이다. 따라서 신라의 산신신앙은 마을 수호·풍년의 초래·재앙의 방지, 영토 확

www.kci.go.kr

장, 왕권 및 국토 수호 등의 목적으로 한 신앙체계 임을 알 수 있다.

넷째, 춤의 내용을 보면 '상염무', '옥도령', '지백급간', '지리다도파(智理多都波)' 등의 신이 현현(顯顯)과 현시(現示)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들 춤은 신령과 신라의 왕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용은 주로 나라의 위급함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거나 도움을 청하는 등 국가수호와 연결되어 왕이 직접 제의를 수행한 양상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반면 화랑들의 제의를 주도한 구체적인 설화는 남아있지 않지만 그들의 역할 속에서 제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기록으로 남아있는 이들 춤의 양태는 알 수 없으나 이 춤의 배경에는 신라의 산신신앙을 토대로 산신에 대한 기원을 바탕으로 형성되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www.kci.go.kr

* 논문투고일자 : 2008. 10. 31. / 심사일자 : 11. 24. / 심사완료일자 : 12. 04.

## ■ 참고문헌


강영경(1992),「신라 전통신앙의 정치·사회적 기능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대문(지음)·조기영(편역)(1997),『화랑세기』, 장락.
김매자(1995),『한국무용사』, 삼신각.
김선미(1985),「신라시대무용에 대한 사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연희(1993),「신라초기 제의 성립과 변천과정」,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택규(1993),『한일문화비교론』, 문덕사.
김효분(2002),「도솔가와 회소곡의 무용사적 의미」,『대한무용학회지』제33호, pp.49-66.
_____(2003),「신라상대의 무용발전과정」,『한국체육학회지』제42권 제2호, pp.293-302.
_____(2004),「신라중대의 무용발전과정」,『한국체육학회지』제43권 제3호, pp.581-589.
박호원(1997),「한국공동체 신앙의 역사적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삼국사기(三國史記)』, 1권 4, 진흥왕(眞興王) 37년조.
『삼국유사(三國遺事)』, 권 3, 彌勒仙花未尸郎 眞慈師條.
송수남(1988),『한국무용사』, 금광.
성기숙(1999),『한국전통춤연구』, 현대미학사.
신상미(1996),「궁중학무와 민속학춤의 구조비교 연구」,『대한무용학회지』제25권, pp.143-164.
이기동(1984),『신라골품제 사회와 화랑도』, 일조각.
이기백(1981),『신라정치사회사연구』, 일조각.
이도흠(2000),『신라인의 마음으로 삼국유사를 읽는다』, 푸른역사.
이병옥(1993),「고대 한국무용사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 송(2008),「사선무의 역사적배경과 의미」,『한국무용교육학회지』제19집 2호, pp.115-129.
이종숙(1985),「한국고대무용의 역사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종욱(2000),『신라이야기』, 김영사.
이흥구·손경순 역(2000),『조선궁중무용』, 열화당.
장사훈(1979),『한국전통무용개론』, 일지사
정병호(1999),『한국의 전통춤』, 집문당.
조흥윤(2002),『한국종교문화론』, 동문선.
최혜진(1999),「신라시대무용과 통일 신라시대 무용의 변화양상」,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상복·이문웅·김광억(1985),『문화인류학개론』, 서울대학교출판부.
홍비연(2004),「삼국유사 기이편의 신화 및 향가연구」,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미지나 아키히데(三品彰英)·이원호(역)(1995),『화랑연구』, 집문당.
M.Eliade·이은봉(역)(1979),『종교형태론』, 형설출판사.

▌국문초록 ▐

# 신라춤과 산신신앙 연구

이 송

이 글은 신라춤에 나타나는 산신신앙을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고대 신라춤의 원형적 모습은 전혀 전해지지 않아 『삼국유사(三國遺事)』, 『삼국사기(三國史記)』의 기록으로 전해오는 춤을 대상 문화인류학의 총체론적 관점 토대로 문헌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신라 문화의 사상적 배경의 하나인 산신신앙은 신라 사람들의 세계관을 규정하고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토대가 된다. 따라서 고대신라의 문화적 예술적 행위의 토대를 파악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따라서 신라의 산신신앙과 관련된 고대 기록에서 신라춤을 파악해보고 그 속에서 신라인들의 산신신앙에 대한 의미를 연구해보았다.

그 결과 신라의 산신신앙은 명산대천에 제사를 지내는 담당주체로 신라의 왕과 화랑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산신신앙은 삼국통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그 목적이 변화하는데, 전자가 마을 수호・풍년의 초래・재앙의 방지 등이라면, 후자는 영토 확장과 왕권 수호 등으로 삼산오악(三山五岳) 및 명산대천의 신앙체계를 확고하게 만든다.

이러한 산신신앙은 '상염무', '옥도령', '지백급간', '지리다도파(智理多都波)' 등의 신이 현현(顯顯)했다는 신령춤과 금강산 무선대에서 신라 사선(四仙) 화랑이 춤췄다는 '사선무' 등에서 나타난다. 기록으로만 전해지고 있는 신령춤과 '사선무'는 당시의 정확한 춤의 형태는 알 수 없지만 당시의 산신신앙의 사상적 토대 위에서 이러한 춤들이 연행되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다.

▌**주제어** : 신라춤, 산신, 화랑, 삼산오악

www.kci.go.kr

## ▌Abstract ▐

# The Dance and the religion of the mountain god of the Silla Kingdom

Lee, Song*

This paper aims to try out research on the faiths of spirits of the mountains called Sanshin that is represented in the dancing of Shilla. The archetypal figure of Shilla dancing is not handed down now at all, while this research was conducted centered on the records of documents on dancing from Samguk Yusa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and Samguk Sagi (chronicles of the Three Kingdoms) in a holistic perspective of cultural-anthropology.

The faiths of Sanshin, one of the philosophical backgrounds of the Shilla culture, serves as a foundation for identifying the world view of the people in those days and configurating the culture. Therefore, it can be of great help to figure out the framework of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carried out in those days. This paper initially identified the dancing of Shilla from the ancient documents with related to the belief of Sanshin, and then tried to find the influence of the belief to the Shilla people.

The result of the research shows that the faith of Sanshin is deeply associated with a king and a specially trained group of youths called Hwarang, who were responsible for rituals towards noted mountains and large rivers. When we divide the purposes of the beliefs of Sanshin, before and after the unification of three countries, you can find them different: the former is protecting their villages, making a good harvest, and preventing themselves from disasters, while the latter is solidifying their faiths to Great mountains and Rivers (Samsanoak) and splendid mountains and great rivers (Myungsandaecheon) by the causes of extending their territories and guarding the power of the king.

www.kci.go.kr

* Hanyang University / leesong67@hanmail.net

This type of worship to mountains is represented in the numen dance (sinryung dance), when it is said gods really appeared, such as Sangyeommu, Okdoryung, Jibaekkeupgan and Jiridadopa, and Sa-seon dance (four mountain wizard dance) which is said to be performed by Saseon Hwarang at Museon-dae in Geumgang mountains. It is not known to us what the Sinryung dance and Sa-seon dance were like in those days, but Sinryung dance and Sa-seon dance is only heard from the records. Nevertheless, those materials are significant, because they enable us to analogize that such dances might have been performed on the basis of the faiths towards the gods of mountains.

**keyword** : Shilla dancing, Sanshin, Hwarang, Samsanoak

www.kci.go.kr